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AT THE WATER'S EDGE

가제 : 물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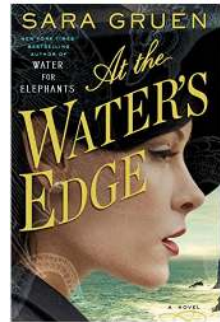
저자 : Sara Gruen

출판사: Spiegel & Grau

발행일: 2015년 3월 31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소설



베스트셀러 <워터 포 엘리펀트>의 작가, 특유의 매력적인 이야기로 풀어낸 한 여성의 사랑

필라델피아 상류사회에서 명성을 떨치던 매들린 하이드. 하지만 1942년의 마지막 날, 사고 모임에 참석한 매들린과 그녀의 남편 엘리스는 부끄러운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이에 격분한 엘리스의 아버지는 수치심에 치를 떨며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도, 육군 대령 출신인 아버지는 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인 전쟁에 아들이 색맹이라는 이유로 참가하지 못한 일을 굉장히 창피한 일로 여기고 있던 터였다.

궁지에 몰린 엘리스는 해결책을 고민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가 떠올린 묘안은 매들린을 공포스러운 정도로 놀라게 만든다. 바로 스코틀랜드 네스호에 산다는, 그 신화 속 유명한 괴물을 사냥한다는 계획이었다! 엘리스의 아버지는 과거에 이 네스호 괴물을 잡겠다고 나서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결국 실패해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다. 엘리스는 자신이 이 괴물을 잡고 아버지의 실추된 명예를 되돌려놓는 것만이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부부는 부유한 사교계 유명인사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행크와 함께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스코틀랜드로 향하는 배에 오른다. 목적지는 고산지대 아주 조그마한 마을, 드럼나드로 치트라는 곳이었다.

2차 세계대전 시기, 낯선 땅 스코틀랜드에서 홀로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된 미국 상류사회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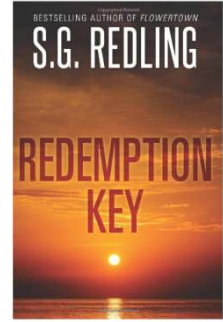
긴 여행을 거쳐 세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하고, 엘리스와 행크는 매일 괴물을 잡겠다고 네스호로 향한다. 그 시각, 현실 속 괴물인 히틀러는 연합군을 상대로 전투에 박차를 가하며 온 유럽을 파괴시키고 있었다. 낯선 외국 땅에서 홀로 남은 매들린은 마을 사람들과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우정을 키워가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시야를 넓혀간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거친 현실세상과 자연의 아름다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동시에 삶에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있는지 깨닫기 시작한다. 내면에 차분함과 강인함을 소유한 매들린은 낯선 나라에 온 이방인으로 첫 발을 내딛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곳곳하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간다. 특권 속에 살아가던 한 여성이 특유의 열정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우아하고 흡입력있게 그린 작품이다.

<저자 소개>

새러 그루언(Sara Gruen)은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 《워터 포 엘리펀트》(국내 2011년 번역 출간), 《보노보의 집》(국내 2011년 번역 출간), 《Riding Lessons》, 《Flying Changes》를 발표한 작가다. 작품은 전 세계 43개 언어로 번역되어 1,000만 부 이상이 판매됐다.

제목 : REDEMPTION KEY
가제 : 구원이라는 이름의 항구
저자 : S. G. Sterling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4년 6월 10일
분량 : 228
장르 : 스릴러



모든 걸 잃고 누구도 믿지 못한다. 목을 죄어오는 추적 속에 우연히 만난 ‘구원’이라는 항구

플로리다 어느 작은 항구, 야영도 하고 낚시도 즐길 수 있는 이곳의 이름은 ‘구원’이다. 8월의 어느 새벽, 이곳에 머물고 있는 대니는 어김없이 악몽에 잠에서 깬다. 파란 눈의 남자가 힘껏 목을 졸라대는 꿈. 이렇게 악몽에 잠을 깨는 날이면 따뜻한 물에 몸을 누이고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는다. 오래 전 워싱턴의 그 더럽고 차가운 물 속에서 익사 당하다시피 하고서도 물에서 안정을 찾다니 참 이상하다고 스스로도 생각하면서. 그 날의 고통과 질식할 것만 같은 두려움, ‘그들’은 대니에게 폐에 가득 물이 차오를 거라고, 그래서 익사하기 전에 출혈로 죽을 것이라 협박한다. 얼음장 같이 싸늘했던 그 날의 바다, 체온은 죽기 일보직전까지 떨어졌고 대니의 몸은 더 이상 추위에 떨 기력도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날 꿈쩍했던 밤 이후, 무엇으로도 몸이 온전히 따뜻해지지는 않는다.

대니가 일하는 곳은 이곳 ‘구원’항의 작은 식당 겸 바. 그가 워싱턴에서 떠난 지는 아홉 달이 지났고, 마지막 피난처가 되리라 확신했던 미국의 남쪽 끝 ‘키 웨스트’를 떠난 지는 여섯 달 정도가 지났다. 쿠바와 겨우 140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라 분명 안전하리라 믿었던 키 웨스트에서조차 결국 안전한 생활은 찾을 수 없었다. 물론 대니 자신도 책임은 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느낌, 계속 따라다니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어 줄곧 불안했고, 결국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식당에서 자기 사진을 찍어대던 덩치 큰 남자에게 주먹을 날려버렸다. 그렇게 일자리를 잃고, 16년된 낡은 차 운전대를 단단히 붙들고는 다시 무작정 길을 떠난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이름이 적힌 항구 이정표를 우연히 발견한다. 항구에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만난 것은 ‘징키스’ 바와 머리가 희끗희끗한 50대 후반의 사장 오린 랜돌프였다. 오린은 대니의 몸 이곳 저곳에 남은 커다란 흉터나 그녀의 수상한 행색에 대해 일절 물어보지 않았고, 그렇게 대니는 이곳에서 가정부로, 웨이트리스로, 낚시용 미끼를 준비하고 카약을 모는 일꾼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살해당한 동료들, 암살자의 손에서 겨우 벗어났지만 또 다시 마주한 검은 세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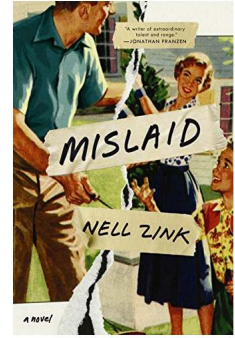
데이터 분석가였던 대니 브리튼. 어느 날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무차별 살해되고 푸른 눈의 암살자에게 자신도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가까스로 도망친다. 그 날 이후 그 누구도, 경찰 배지를 가슴에 단 사람들마저도 믿을 수 없고, 어떤 선택을 해도 불안함에 떨어야 하는 삶이 시

작된다. 머나먼 어느 항구에서 겨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술과 느긋한 분위기, 따뜻한 바닷물 속에서 고통스러운 과거를 조금 치유 받으려 했지만 이 자그마한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거래가 평범한 일처럼 벌어진다. 대니는 그간 험한 일을 겪고 쫓기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려는 자를 구분하는 능력이 탁월해졌고, 암거래를 알선하는 사장 오린은 그녀의 이런 능력을 사업에 이용하려 한다. 알 수 없는 과거를 지닌 오린, 그리고 어두운 거래에 대니를 끌어들이려 위협하는 손길들... 피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상어떼처럼, 법이라는 탈을 쓰고 어떻게든 목을 조르려 달려드는 세력들에 맞선 대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푸른눈의 암살자,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자 소개>

S.G.레들링(S.G. Redling)은 조지타운 대학교를 졸업하고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15년간 아침 라디오 방송을 운영했다. 저서로는 《Damocies》, 《Flowertown》, 《The Window File》이 있다.

제목 : MISLAID
가제 : 엉켜버린 인생
저자 : Nell Zink
출판사: Ecco
발행일: 2015년 5월 19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소설



인종, 성적지향성 문제로 혼란스러워하는 1960년대 한 여성의 남다른 인생

1966년, 버지니아주 스틸워터 대학에 갓 입학한 페기 베일레인코트는 문학을 동경하는 척 하는 순진한 아가씨였다. 꽤 괜찮은 형편이었지만 검소하게 사는 부모님 밑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군에 입대하겠다고 마음먹었고, 남자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전형적인 주부인 엄마는 그런 딸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페기에게 철저히 여성스러운 옷과 장신구를 잔뜩 사 입히며 마음을 돌리려고 했다. 예쁘게 차려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도 감동한 페기는, 꿈을 접고 대학에 입학했다. 하지만 신입생이 되어 집에서 자유로워진 페기는 군대용품 파는 곳에 가서 자신을 원하던대로 꾸며줄 옷을 샀다. 어두운 카키색과 검정색 크루넥 스웨터를 걸치고, 거칠고 강인한 외모로 보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런 페기의 모습은 더 없이 사랑스러웠다. 짧게 자른 곱슬머리는 마치 작은 왕관을 쓴 것 같은 귀여운 인상을 풍겼고, 작은 엉덩이와 납작한 가슴도 페기 자신은 보이시하게 보이리라 생각했지만 1960년대 당시에는 오히려 매력적인 요소였다.

어느 날, 페기는 부유한 명문가 출신 교수이자 시인인 리 플래밍에게 마법에 걸린듯 매혹된다. 시를 사랑하는 리는 '스틸워터 리뷰'라는 문학 잡지를 발행하면서 필요한 운영 자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대학 강사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출간 3년 후 이 잡지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게 시작했고 더 이상 자금난에 시달리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시와 비평, 글쓰기 수업을 맡았다. 신입생은 리 플래밍 교수의 글쓰기 강좌를 들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지만, 말도 안되는 제한 조건이라고 생각한 페기는 리를 찾아가 수강하게 해달라고 조른다. 리는 그녀가 문학적으로 얼마나 진지한지 테스트하고 페기는 알은 실력을 제대로 들려 결국 수업을 듣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의 매력에 끌린 리는 그녀와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시작하고, 결국 두 사람은 부적절한 사이로 발전한다. 사태는 계획에도 없었던 페기의 임신으로 악화되고 둘은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을 올린다. 하지만 시작부터 잘못된 만남이었다. 페기는 레즈비언이었고, 리는 게이였으니 말이다.

동성애자, 흑인, 부유층과 빈곤층, 모녀와 부자가 각자 경험하고 이겨내야 했던 혼란스러운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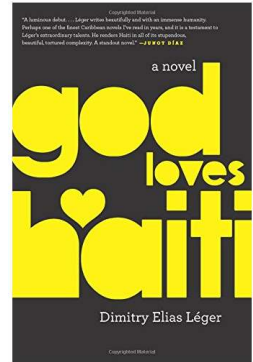
10년 동안 꼭 참고 결혼 생활을 하던 페기는 결국 아홉 살짜리 아들과 남편을 버리고, 세살배기 딸만 데리고서 집을 나오고 만다. 리가 어떻게 나올지 두려운 나머지, 페기는 숨어지내기로

결심하고 어느 흑인 보호소에서 몰래 생활을 이어간다. 그렇게 페기와 리의 손에서 각각 자라난 아들 버디와 딸 카렌. 버디는 너무나 충동적인 아버지의 지독한 정직함을 견디며 살아야 했고, 카렌은 엄마의 끝없는 거짓말 속에 혼란스러워하면서 컸다. 엄마는 진짜 나이도 알려주지 않았고 어딘가에 다른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도 카렌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카렌은 소수인종 장학생 자격으로 버지니아 대학교에 입학한다. 같은 대학 졸업반으로 재학 중이던 버디, 남매는 기나긴 헤어짐 끝에 마침내 만나게 되는데... 날카로운 유머와 풍자적인 시선으로 인종차별과 성 정체성,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의미를 탐구하는 깊이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넬 징크(Nell Zink)는 건설현장, 제약업계,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독일에 살면서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그녀는 작가로서 1990년대 인디록 잡지를 설립했고, <Seventeen> <n+1> 과 같은 다양한 잡지에 단편들을 출간했다. 데뷔작인 《Wallcreeper》는 뉴욕타임스에서 극찬을 받았다.

제목 : GOD LOVES HAITI
가제 : 신은 아이티를 사랑해
저자 : Dimitry Elias Legar
출판사: Amistad
발행일: 2014년 1월 6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소설



2010년 아이티를 덮친 가공할 만한 지진, 모든 것을 잃고 힘없이 쓰러져야 했던 사람들

눈에 띄게 아름다운 외모의 나타샤 로버트는 얼마 전 결혼한 남편과 팔짱을 끼고 길을 걷고 있었다. 아이티 대통령이기도 한 남편과 함께 두 사람을 기다리는 비행기를 타러 가는 중이다. 이제 아이티에서의 모든 생활에서 벗어나 이탈리아에서 호화롭게 살아갈 날이 나타샤의 눈앞에 펼쳐졌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 포르토프랭스지만 나타샤에겐 늘 따분하게만 느껴진 곳이기도, 얼마 후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남편과 함께 시작할 새로운 삶이 너무나 기대된다. 남편을 사랑하진 않지만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며 공항으로 걸어가던 나타샤의 마음 속에, 문득 망설임이 파고든다. 자신이 버리고 온 남자, 알랭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알랭은 나타샤가 진심으로 사랑한 남자였다. 하지만 나타샤는 여행을 위해 집을 나서기 전, 방 옷장에 알랭을 들어가게 하고 문을 잠궈버린 채 그대로 와버렸다. 그를 완전히 버리고 꿈꾸던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나타샤가 알랭을 생각하던 그 순간, 땅이 흔들리고 주변 모든 건물이 마치 카드로 만들어진 것처럼 사람들 위로 쓰러졌다.

아이티에 발생한 거대한 지진으로 단 35초 사이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130만 명이 길거리에 나앉았다. 당시의 강력한 지진은 빈곤과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아이티를 무참히 짓밟고 지나갔다. 나타샤는 안개처럼 온통 부옇게 떠 다니는 먼지와 그 속을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눈을 잃고 서 있었다. 아무 것도 볼 수 없었고, 아무 것도 들리지 않았다.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몸 어딘가가 부러지거나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신께서 모든 것을 휩쓸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데려가셨구나, 나타샤는 그 혼란 속에서 이렇게 생각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녀를 힘껏 일으켜 세웠다. 남편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살아남았음에 놀라고 기뻐하며, 잠시 말문이 막혔다. 순식간에 지나간 지진과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들끓는 회한, 고통, 고립감, 절망 속에서 나타샤는 이루어질 줄만 알았던 계획이 무너졌으며, 앞으로 삶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다시 떠오르는 의문 하나. 과연 알랭은 무사한 것일까?

지진이 휩쓸고 간 곳, 괴로운 삶이지만 조금은 유쾌하게 인간성을 통찰한 독특한 소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의 봉기가 성공하면서 처음으로 일으킨 아이티라는 국가의 자랑스러운 모습, 그리고 프랑스, 미국과의 얽히고설킨 정치적 다툼, 지진으로 폐허가 된 땅을 또 한번 새롭게 일으켜 세우려는 노력 속에서 나타샤, 알랭, 나타샤의 남편이자 대통령인 세 사람이 펼치는 가슴 따뜻하고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

<저자 소개>

디미트리 엘리아스 르거(Dimitry Elias Léger)는 아이티 포르토프랭스에서 태어나 세인트존스 대학교와 하버드 케네디 학교에서 공부했다. <마이애미 해럴드>, <포춘>, <소스>에서 작가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뉴욕타임스>, <뉴스위크>, 영국의 <페이스> 매거진에도 글을 기고했다. 2010년 아이티 지진 이후 UN 재해복구사업에 참여하여 고문으로 활동했다. 위 작품은 그의 데뷔작이다.

NON-FICTION

제목 : INSTANT MOTIVATION

가제 : 순간의 의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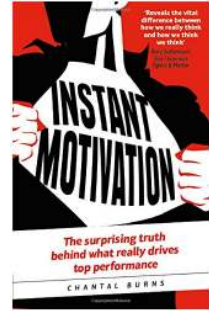
저자 : Chantal Burns

출판사: FT Press

발행일: 2015년 2월 16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진짜 생각과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 개개인의 마음 상태를 알아야 성과가 보인다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대부분의 업무 현장에서 간과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굉장한 성과를 그것도 즐겁게 낼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간단하다면? 이토록 중대한 요소가 무시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사람들은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 눈에 띄는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회사에서의 성과 향상, 인적개발, 동기부여와 훈련에 관한 책과 프로그램은 그 어느 때보다 급증했지만 일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많다. 각 기업은 직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지만, 대체로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하며 설령 성공한다 해도 오래가지 못한다. 기회와 선택이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우리 앞에 펼쳐진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확장된 세상을 불안하고 되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흥미진진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껏 없었다. 성공과 행복, 그 진짜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만 있다면 말이다.

저자는 2012년부터 시작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를 토대로, ‘마음 상태’가 직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가치가 얼마나 간과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직장을 비롯한 우리 삶의 전반에서 행복한 마음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독자는 저자가 직접 마련한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 현재 상황을 ‘마음상태 지표’로 알아볼 수 있다. 책에서는 우선 마음 상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와 논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어 건강, 대인관계, 자신감, 집중, 결과도출, 의사결정 등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에서 마음 상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본다. 저자가 직접 상담했던 고객들의 사례를 고찰하는 사례연구, 저자의 연구에서 얻은 결과, 저자가 개인적인 삶에서 겪은 일들도 함께 제시된다.

일에 대한 동기가 자연스럽게 생기도록 만들면 좋은 성과는 따라올 수 밖에 없다

무언가에 대해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신선한 생각, 새로운 사고를 우리는 통찰이라고 한다. 인간은 통찰력을 가진 존재이며, 통찰은 학습의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인간은 학습 능력이 우수하다. 최고의 발명, 놀라운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무언가가 또렷해지고 통찰하는 순간에서 비롯됐다. 그런 순간은 어느 때고 찾아올 수 있지만, 마음이 덜 옥죄인 상태에서 훨씬 더 많이, 쉽게 찾아온다. 아주 복잡한 문제에 해답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포기하는 순간 갑자기 방법이 떠오른 경험이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설명하는 모든 방법 또한 억지로 해보려고 애쓰지 말고, 진심으로 공감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자신의 통찰이 되어 변화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한다. 좋은 성과가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통해 나오는지 이해하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동기를 갖고 성취하고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는 일터에서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삶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저자 소개>

찬탈 번스(Chantal Burns)는 심리학을 적용하여 개인과 기업이 우수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 'Star Consultancy'를 2000년부터 운영 중이다. 전 세계적인 성과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CEO부터 중간 간부까지 수천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제목 : THE WOMAN WHO WOULD BE KING

가제 : 왕이 될 수 있었던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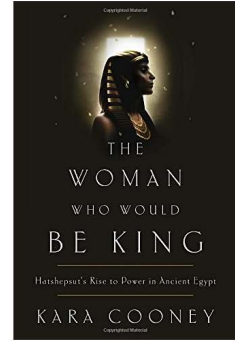
저자 : Kara Cooney

출판사: Crown

발행일: 2014년 10월 1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전기



이집트 두 번째 여성 파라오 하트셉수트의 삶, 최고 권력을 얻기 위한 그녀의 치밀한 전략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여성 파라오 하트셉수트, 권력을 거머쥐기까지 그녀가 지나온 대담한 여정과 파라오로서의 일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왕위를 빼앗긴 아버지, 이전 왕조와 연결고리를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하트셉수트는 왕가에서 온갖 특권을 다 누리며 자랐다. 풍족한 삶, 가족끼리 어지럽게 얽힌 왕가 혈통, 충만한 성적 에너지까지 지닌 그녀는 우리가 고대 이집트의 역사에 끊임없이 매혹을 느끼는 핵심 요소를 두루 갖춘 여인이다. 하트셉수트는 아버지 가문의 집권을 정당화하려면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고 그 때부터 그녀의 삶은 꼬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무 살을 갓 넘긴 나이, 그녀는 아직 갓난아기던 투트모스 3세의 친모를 술책으로 이기고 그를 대신해 이집트를 이끄는 섭정이자 공동 파라오로 왕좌에 오른다.

남장을 하고 한 나라를 다스렸다고 전해지는 하트셉수트에 관한 자료는 턱없이 부족하다. UCLA 이집트 학자인 저자는 그 불확실한 역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학자로서 제기할 수 있는 풍부한 가설로 하트셉수트의 일대기를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들려준다. 태어나면서부터 최고 사제라는 중책이 주어진 그녀는 몇 번의 행운과 무자비한 전략을 토대로 왕좌라는 산 정상에 끝 끝내 도달한 인물이다. 능수능란한 전략가였고 정치적인 파워게임을 벌이면서도 독실함과 남장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스스로 구축한 새로운 성적 정체성의 베일 속에 그 지저분한 이면을 잘 숨길 줄 아는 영리한 왕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하트셉수트의 왕위가 신의 계시를 받아 인정된 자리로 알려졌지만, 역사적 기록이 부족하고 당시에는 초자연적인 신의 권한이 너무나 자주 언급되던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신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을 가진 여성, 이를 바라보는 사회의 엇갈린 시선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왕가의 아이로 태어나 이집트 최고 권력을 얻는데 성공한 하트셉수트의 집권 시기는 고대 이집트 전체 역사에서도 가장 번성하고 성공한 시대로 꼽힌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권력과 남성성을 동일시하는 권위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듯이, 하트셉수트 역시 이집트의 두 번째 여성 파라오가 되기까지 영민하고 민첩한 권력 싸움을 이겨내야 했다. 이 책에서는 당시 하트셉수트가 스스로를 남성의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인 자료와 함께 그녀와 주변 인물의 심리학적 특징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들여볼 수 있다. 하트셉수트의 자기 인식, 정치적인 기량, 생활 방식은 “천하무적 워킹맘”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고, 동시에 고대 이집트 사회의 성 역할을 생각하게 한다. 하트셉수트가 단시간 내에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결국 권력을 통합한 과정, 그리고 당시 국민들의 인기도 그만큼 단시간에 잃게 된 이유에 대해 저자의 뛰어난 해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잊혀진 한 여성 파라오의 파격적인 삶과 우리 시대 권력을 지닌 여성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되새기게 되는 책이다.

<저자 소개>

카라 쿠니(Kara Cooney)는 UCLA 근동지역 언어·문화학과에서 이집트 예술과 건축물을 가르치는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5년 로스앤젤리스 카운티 미술관에서 열린 ‘투탕카멘과 이집트 파라오의 황금 시대’ 전시에서 공동 큐레이터를 맡았다.

제목 : TOWARD A FUTURE BEYOND EMPLOYEMENT

가제 : 직업을 넘어 미래를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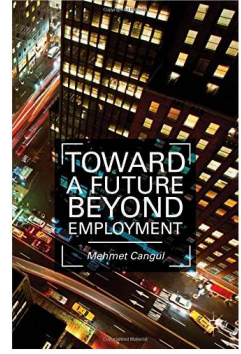
저자 : Mehmet Cangul

출판사: Palgrave Macmillan

발행일: 2014년 4월 2일

분량 : 232 페이지

장르 : 경제 경영



급변하는 현대사회, 전통적인 일자리와 일의 의미는 이미 퇴색됐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은?

수많은 선진국에서 실업률 증가로 골머리를 앓지만 딱히 해결하지 못한 채 오랜 숙제로 남아 있다. 위기의 시대, 실업률은 ‘일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점화시켰다. 정책적인 논의는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라는 문제에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이 책의 저자는 그러한 맥락에서 벗어나 비단 경제적인 맥락에서만이 아니라, 도대체 일이 무엇이며 더 광범위한 시각에서 현재와 같이 복잡하게 발전하는 삶에 직업에도 재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 일자리를 굳이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전제부터가 이미 비논리적이고 뭔가 엉뚱한 데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저자는 노동력이 필요한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생기도록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기한다.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유동적이고,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사건들이 모여 불확실한 미래를 만들고 있다. 우리 인간은 타고난 분별력을 발휘하여 역사상 늘 그랬듯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애쓰지만, 회의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무언가를 통합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은 즉시 공격을 받고 그 논리는 힘을 잃기 마련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크게 두 가지 의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으려 노력한다. 첫째, 선진 경제사회에서 실업이라는 문제는 구조적으로 독특한 측면, 자연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는 새로운 의문도 아니며 다양한 시대에 여러 가지 논쟁을 일으키며 답이 제시됐다. 둘째, 실업이 정말 그렇게 사회에 해가 되는 문제일까? 실업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회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심지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오히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자는 소위 ‘고용 위기’라고 불리는 문제가 특히 올바른 구조적 특징을 구축한 선진 경제국가에는 스스로 혁신했던 요소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업률,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고 행복과 부를 얻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
이 책에서는 위와 같은 중요한 의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고용 위기와 관련하여 고찰한다. 더불어 개발도상국, 저소득 경제국가에서 나타난 문제와 경제 성장의 구조가 한 국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기술적인 혁신이 효율성을 높이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한 시대에,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현대 경제사회의 전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인간의 노동과 삶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사회적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뀐 서구 경제사회에서는 특히 전통적인 일의 중요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신흥 경제국가나 나름의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직면한 선진 경제국가 모두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후고용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일이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인식이 자리할 때, 인간은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일에 대한 정의'를 고민하게 하는 책이다.

<저자 소개>

메멧 칸굴(Mehmet Cangul)은 경제 컨설턴트이자 미시경제학자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경제 석사 공부를 마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통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목 : AGENDA FOR A NEW ECONOMY

가제 : 새로운 경제를 위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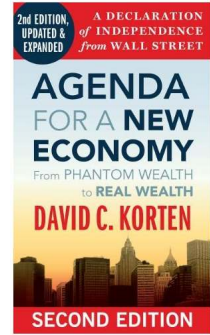
저자 : David C Korten

출판사: Berrett-Koehler Publishers

발행일: 2010년 8월 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경제



2008년 월 스트리트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미국 금융시장이 붕괴된 2008년, 이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경제 회복은 너무나 희박한 약속처럼 들린다.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필요했지만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워싱턴의 소심한 고집은 끝내 이겨내지 못했다. 실업과 압류가 온 나라에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월 스트리트에서는 엄청난 보너스 잔치와 새로 적발된 부패 고리에 관한 뉴스가 흘러나온다. 이 책은 무엇보다 '월스트리트로부터의 독립선언'을 주장한다. 저자는 재정적 가치보다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시스템, 사람과 지역사회에 권력을 부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살아 숨쉬는 시장,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각 지역의 유연성과 자주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이 책이 도심 한복판에서 시작되어야 할 비폭력 혁명에 관한 지침서이며, 변화란 위에서부터가 아닌 아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2008년 발생한 모든 사태의 근원은 "가상의 부"를 완벽하게 만들어낸 월스트리트 금융기관들로 인해 시작됐고, 그 문제의 핵심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실질적인 가치는 아무 것도 없이 그저 종이에 찍힌 숫자만 존재하는 부, 사회적인 결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부의 축적이 낳은 결과다. 저자는 2008년 9월 이후에도 월 스트리트라는 한 마리의 포식자가 여전히 그 본성을 버리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더불어 다른 한 견에서 이 포식자를 잡는 대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개혁을 단행하는데 치중한 이유를 파헤친다.

이와 함께 저자는 '월스트리트' 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메인 스트리트(중산층, 실물)' 경제를 제시한다. 즉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소유하고 지역에서 시작된 살아 있는 기업이 바탕이 되어 사람과 환경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기준으로 성공을 판단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또한 저자는 정치적 마비 상태를 해소하고 월 스트리트의 허상뿐인 부를 메인 스트리트의 살아 있는 부로 대체하기 위해 우리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혁신적인 계획의 하나로 제시한다. 이 모든 노력은 평범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의 가치를 중시하기 위한 과정이다.

아래에서 위를 향한 변화와 개혁, 실물 경제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절실하다

저자는 경제가 몰락한 이후 내려진 처방은 마치 암을 반창고로 치료하려는 시도처럼 경제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한다. 실패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원인을 도려내고, 월스트리트에 모든 희망을 걸지 말고 진정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진짜 자원으로 실질적인 부를 창출해야 한다. 2010년 개정되어 출간된 제 2판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2009년 마련한 경제 회복 프로그램이 경제 시스템 회복에 실패한 원인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문제를 피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심층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분석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제 2판은 2011년 ‘독립출판사 도서상(Independent Publisher Book Award)’ 은메달을 수상했다.

<저자 소개>

데이비드 C. 코튼(David C Korten)은 ‘사람 중심 개발 포럼(People-Centered Development Forum)’의 설립자이자 대표이며 ‘지역생활경제를 위한 기업 연합(Business Alliance for Local Living Economies)’의 이사를 맡고 있다. ‘세계화에 관한 국제 포럼(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과 로마클럽에도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에 오른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질까》(국내 2014년 번역 출간), 《The Great Turning: From Empire to Earth Community》, 《The Post-Corporate World: Life After Capitalism》 등이 있다.

제목 : FEEDING FRENZY

가제 : 식량 수급, 그 광란의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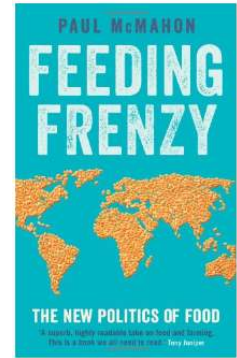
저자 : Paul McMahon

출판사: Greystone Books (초판 Profile Books)

발행일: 2014년 5월 13일 (초판 2013년)

분량 : 356 페이지

장르 : 사회



늘어나는 세계 인구, 치솟는 식료품값, 점차 가열되는 식량 위기의 현 주소와 위험천만한 동향

아프리카 오지의 어느 마을, 번쩍거리는 철재 울타리가 나타났다. 주변 풍경과 참 안 어울리는 이 구조물은 탁 트인 대지 사이에서 움막과 지저분한 길이 곧게 나 있는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 지었다. 울타리 안쪽에는 디젤 연료로 가동되는 트랙터가 흙을 보슬보슬하게 일구고, 한쪽에는 종자와 비료가 담긴 상자가 대기 중이다. 국적이 다른 농장 관리인은 풍작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울타리 바깥쪽에서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마을 농민이 곡괭이 하나 달랑 들고 땅을 파헤친다. 가족들 입에 풀칠할 정도의 식량도 기르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울타리 입구에 모여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원래 이 땅은 우리 소유인데...’ 낮은 소리로 중얼댄다. 마을 젊은이들이 무장을 하고 외국인의 이 ‘토지 수탈’에 대응하려 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 이야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해외로 수출할 식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시작한 공식 사업의 일환으로 억만장자인 국가 왕족이 수단 남쪽 국경과 가까운 에티오피아 서부 한 마을의 경작지를 손에 넣으면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다. 2008년 이후부터,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유사한 사업이 수십 건 시작됐다.

철재 울타리, 위성으로 조종되는 트랙터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땅에 등장하게 된 이유는 바로 지난 5년 간 전 세계 식품 시장에 휘몰아친 혼란에서 찾을 수 있다. 2007년과 2008년 사이 식품 가격은 두 배 이상 올랐고 곡물 비축량은 위험한 수준까지 감소했으며 아무리 비싼 돈을 내도 필요한 공급량을 채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식품 가격은 2010년에 또 다시 상승하더니 2012년에 다시 한번 치솟았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가격차가 느껴지지만 값이 떨어질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결코 끝나지 않을 식품 위기에 빠져버린 불안감이 팽배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식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

식료품 구입에 지출하는 돈, 외식 비용의 변화만 봐도 그 여파를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민국에서는 그 영향이 훨씬 더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인구는 8명 당

한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점점 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급증한 식량 가격으로 폭동과 시위가 일어난 국가만 30개국에 넘는다. 2011년 1월, 튀니지의 한 거리에서 무장한 채 경찰에게 위협을 가하던 한 시위자의 사진 한 장이 큰 이슈가 됐다. 그가 원한 건 다름아닌 바게트 한 개 였다.

식량 생산 국가들은 이웃 나라가 굶주림에 시달릴 것을 뻔히 알고도 식품 수출을 금지하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식품 공급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거머쥐려고 치열한 다툼을 벌인다.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힘 있는 무리들은 가난한 국가의 농경지를 구입해 수출용 식량을 재배하는 토지 수탈도 서슴지 않는다. 2050년이면 지구 전체 인구가 90억이 된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인구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필요한 식량을 계속 공급할 수 있을까? 토지와 물이 고갈되고 있는 건 아닐까? 자유시장경제에 맡겨놓아도 정말 괜찮을 걸까? 이 책은 더 극심한 굶주림, 더 치열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 지속 가능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식품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한다.

<저자 소개>

폴 맥마혼(Paul McMahon)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국 황태자가 운영하는 '국제 지속가능협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Unit)'와 UN 식량농업기구에서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호주와 전 세계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에 투자하는 'SLM Partners'를 공동 설립하고 운영을 돕고 있다.

제목 : SECRETS OF FASHION THERAPIST

가제 : 패션 치료사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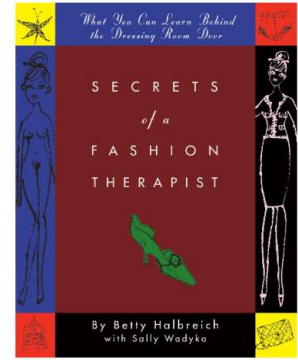
저자 : Betty Halbreich, Sally Wadyka

출판사: Harper Design

발행일: 2013년 6월 4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패션



뉴욕 고급 백화점 쇼핑 전문가가 전하는 ‘진짜 옷 잘 입는 방법’과 탈의실에서 벌어지는 뒷얘기

뉴욕에서 가장 매력적인 백화점으로 꼽히는 ‘버그도프 굿맨.’ 이곳에서 30년 넘게 고객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찾아내는 일을 맡고 있는 저자는 일터에서의 하루하루가 사실 멋들어진 패션쇼보다는 고 난이도 서커스와 더 비슷하다고 이야기한다. 영화배우, 힘 있는 업체 대표들, 공무원, 평범한 가정주부, 젊은 엄마들, 평범한 직장 여성 등 갖가지 체형, 다양한 사이즈의 여성들이 끝도 없이 몰려와 도움을 청한다. 각자의 위치, 직업, 지출하는 돈의 규모도 다 다르지만 계속해서 백화점을 찾아와 옷을 입어보고 쇼핑을 즐기는 이유는, 단순히 옷을 구매하는 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즉 스스로 더 기분이 좋아질 일을 찾아서 한다는 의미가 크다. 따라서 옷을 고르고 사는 과정은 재미있어야 한다고 필자는 이야기한다. 그리고 즐기지도 못할 옷을 고르는 건 핵심을 놓치는 것과 같다고 전하며, 스스로에게 조금은 변화를 주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늘 누구보다 한 발 앞서서 계절에 맞는 옷을 차려입던 엄마를 보면서 성장한 저자는 자연스럽게 개개인에게 딱 맞는 옷을 골라주는 직업을 택하게 되었다. 스팅클이 반짝이는 드레스, 여우털이 가장자리를 감싼 정장, 칵테일 드레스를 입고 단장하는 엄마를 뵈을 잃고 바라보던 어린시절, 엄마가 한껏 예쁘게 단장하고 외출하고 나면 몰래 엄마의 침실에 들어가 하이힐이며 화려한 장신구, 보드라운 벨벳 가운을 걸쳐보곤 했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이후 청소년기에도 모두 똑같은 유니폼을 입어야 했던 여름 캠프에서조차 소매를 특이하게 걷거나 목에 스웨터 하나를 둘러서라도 남과는 다른 패션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개성 있는 패션을 추구한다고 해서 항상 관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옷을 잘 입는 비결은 바로 ‘태도’에 있다는 사실이다. 옷에 대한 태도, 그리고 머릿속으로 스스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람들이 가득한 방에 걸어 들어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관찮다고, 만족스럽다고 느낀다면 그 태도는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투영되고 전해진다.

누구나 노력하면 옷을 잘 입을 수 있다, 변화를 두려워말고 과감한 시도와 자신감이 필요하다

매일 아침 옷을 차려 입는 일만큼 고역스러운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옷을 입는 일은 자신의 몸매에 대한 마음 상태를 그대로 대변한다. 뭔가 새로운 패션을 찾아 매일 밀려드는 고객들을 대하

면서 저자는 냉혹하리만치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누가 봐도 타고난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서,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타고난 감각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절대 배울 수 없는 일도 아니라고 저자는 단언한다. 단, 연습이 필요하며 거울을 '많이'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백화점에서 벌어진 저자의 갖가지 경험담과 옷을 잘 입는 방법에 관한 간단한 조언, 윗트 넘치는 총고가 200편이 넘는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레이션과 잘 어우러진 책이다. 검은색 옷만 입으려는 소심한 태도에서 벗어나는 법, '캐주얼 입고 출근하는 날'에는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충고, '검은색 넥타이'에 담긴 진짜 의미, 어떤 액세서리도 소화할 수 있는 옷 등 현실적이고 재미 있는 패션 이야기가 가득하다.

<저자 소개>

베티 할브레이시(Betty Halbreich)는 뉴욕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에서 30년 넘게 근무 중이다. 수많은 디자이너와 협력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샬리 와디카(Sally Wadyka)는 <마드모아젤>, <엘르>, <셀프>, <보그> 등 여러 잡지에 패션과 뷰티에 관한 글을 게재하고 있다.